

요약본

<이라크 현지>

조사 결과 보고서

2003. 12. 2

국회 이라크 현지 조사단

제1부. 조사개요

I. 목 적

행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의 원칙을 결정함에 따라 파병 대상지인 이라크를 직접 방문·조사함으로써 향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병 동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

II. 조사기간

2003. 11. 18(화) ~ 11. 26(수) (8박 9일)

III. 조사중점

1. 현지일반정세
2. 통치/행정기구 동향
3. 주둔부대 작전현황
4. 현지 치안 상황
5. 현지 민생 상황
6. 추가파병 관련사항(인식, 임무기대, 고려사항 등)

IV. 조사단 구성

1. 단 장 : 강창희 의원(한나라당)
2. 단 원
 - 국회의원 : 한충수 의원(새천년민주당)
 - 송영길 의원(열린우리당)
 - 정진석 의원(자유민주연합)

- 민간전문가 : 유정렬 교수(중동·아프리카 연구원 이사장)
전경만박사(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)

3. 수행 및 조사실무(4인)

- 국회 국방위원회 : 수석전문위원 김대훈
입법조사관 서덕교
- 외교통상부 관계관 : 김종용 심의관
- 국 방 부 관계관 : 이재현 육군대령

V. 조사단 이동경로

VI. 조사일정

일시	내용	비고	
11.19 (수)	11:00~12:30	• 쿠웨이트 대사 면담 • CJTF-7 연락장교 브리핑	
	12:30~14:00	• 조사단 현지 준비회의 및 중식	
	14:00~18:30	• 나시리야 이동(육로이동)	• 서희/제마부대 경호
	18:30~19:20	• 서희/제마부대 사병동석 식사	• 나시리야 1박
	19:20~21:00	• 서희/제마부대 브리핑	• 서희부대 정작과장
11.20 (목)	09:10~10:05	• 디카르주 경찰청장 면담	
	10:50~11:35	• 나시리야 기술대학장 면담	
	12:30~13:05	• 족장협의회 의원(엘거지족 족장) 면담	
	14:00~15:00	• 알 힐라 이동(헬기이동)	• 미군 협조
	15:00~16:00	• 폴란드 다국적 사단 브리핑	
16:00~16:20	• 바그다드 이동(헬기이동)	• 미군 협조	
11.21 (금)	07:15	• 팔레스타인 호텔 로켓피격	• 팔레스타인 호텔
	12:20~13:00	• 여행사 사장 면담	• 팔레스타인 호텔
	13:00~14:00	• 전직 외교관 면담	• 팔레스타인 호텔
11.22 (토)	10:10~10:50	• CPA행정처장의 1명 면담	• CPA 구내
	11:05~12:00	• Global Risk Strategy 브리핑	• CPA 구내
	12:15~13:00	• IGC의원 3명 면담	• IGC
	14:05~14:55	• Iraqi Islamic Party 부총재/ 정책위의장면담	• 컨벤션 센터
	18:30~20:30	• 교민 배석 대사관 주최 만찬	• 교민 8명 참석
11.23 (일)	10:05~12:00	• CJTF-7 공병부처장 브리핑 • CJTF-7 민사담당 브리핑 • CJTF-7 부사령관 면담	• CPA 구내 컨퍼런스 룸
	13:00~14:30	• 키르쿠크 이동(헬기이동)	• 미군협조
	14:30~15:40	• 173공정여단 브리핑	• 173공정여단본부
	16:10~16:50	• 키르쿠크 주지사 면담	• 키르쿠크 주청사
	18:00~19:00	• 모술 이동(헬기이동)	• 미군협조
	19:25~20:30	• 니나와 주지사 외 5명 면담	• 101공정사단 영내
	20:40~21:30	• 101공정사단 브리핑	• 101공정사단 상황실
11.24 (월)	08:45~09:30	• 101공정사단 후방지원지휘소 브리핑	• 모술 공항 상황실
	09:45~11:00	• 모술시 종교지도자 Dr. Salah외 1명 면담	• 모술시내SocialClub
	11:15~12:00	• Ibn Sina 병원 방문	
	13:20~14:30	• 101공정사단 1여단 브리핑	• Qayyarah소재 여단 본부
	14:45~16:20	• 바그다드 이동(헬기 이동)	• 미군 협조
11.25 (화)	10:00~11:00	• 현지기업인 박상화 씨 면담	• CPA내 숙소
	14:00~16:00	• 쿠웨이트 이동(공로이동)	• 호주 C-130수송기

제2부. 총 평

I. 조사의 한계

- 8박 9일의 짧은 일정과 제한된 인원으로 인한 한계
- 팔레스타인 호텔 피격사건 이후 안전확보 문제로 인한 제약
- 조사대상 섭외의 한계(미군의 협조 불가피)와 언어장벽

II. 이라크 치안상황

-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삼각지대의 정치적 테러는 증가하는 반면, 남부(나시리야 등) 및 북부(키르쿠크, 모술 등)의 민생치안은 대체로 안정화되고 있음
- 최근 조직적인 지휘체계와 보강된 무기로 무장된 저항 세력들이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라크의 안정화를 저지하고 동맹군의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구호 단체나 NGO등 soft target에 대한 테러를 계속
-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인식이 좋으나 추가파병될 경우 저항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Ⅲ. 이라크 민생상황

- 이라크는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며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나 세 차례에 걸친 전쟁 및 13년간의 경제제재, 그리고 후세인 전체주의의 폭정 등으로 인해 경제 및 민생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
- 이라크인들은 후세인 정권의 붕괴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후세인의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
- 이러한 경제 및 민생상황의 악화가 치안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, 치안불안이 또다시 경제재건과 민생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공통된 의견임

Ⅳ. 한국군 추가파병 관련

- ① 이라크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교육열 등 중동지역에서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므로 한국이 자주적인 자세로 이라크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향후의 한-이라크 관계가 더욱 증진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
- ② 미군 병력이 감축되는 가운데 동맹군은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한국군이 치안유지를

담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

- ③ 이라크인들은 기본적으로 외국군의 파병은 원하지 않고
있음. 이라크의 치안은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고 불가
피하게 파병되더라도 한국군은 재건지원을 해주기를
바라고 있으나,
- 아직 독자적인 치안 능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치안
유지를 위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
일부 존재
 - 특히, 키르쿠크 및 니나와 등 북부지역에서는 터키
등 이라크 주변 국가와는 달리 영토적인 욕심이 없는
한국군이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도와주기를 기대
- ④ 파병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파병지역이
먼저 결정되어야 치안/재건소요를 판단할 수 있음.
따라서 파병지역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함
- ⑤ 군수조달의 재원 및 보급로 등에 면밀한 사전조사와
더불어 장비 및 가용 시설에 대한 치밀한 판단이 선행
- ⑥ 이라크와 한국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관한 기초적인
지식을 갖추고, 특히 현지 주민들에 대해 절대적인
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족장 및 종교지도자의 협조를
확보하는 것이 중요
- ⑦ 이라크인 치안담당자들은 성공적인 치안유지를 위해
동맹군과 자신들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
- 정확한 정보획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랍어에
능통한 통역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

- ⑧ 한국군은 다국적군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보다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진 혼성부대로 구성하여 치안유지와 의료 및 공병 등 지원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사단의 다수 의견이었으며, 이라크 통치 주권은 유엔으로 이관해야 하며, 철저히 평화재건 부대를 중심으로 추가파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또한 있었음
- ⑨ 과거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이 전쟁의 고통과 극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라크의 선량한 국민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
- ⑩ 또한 이라크 현지의 정서를 고려할 때 파병의 명분을 한-미 동맹의 강화라는 측면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-이라크, 또는 한-아랍의 친선 우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음
- ⑪ 이라크의 실업률(60%이상)이 심각하므로, 재건지원 사업시 이라크 현지인을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, 추가 파병 이전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함

제3부. 추가파병 관련사항

I.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한 현지인 인식

1. 기 파병사실 인지 여부 및 한국군의 이미지

- 남부지역(나시리야)에서는 한국군 파병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인도적 재건/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크게 호응
- 기타지역(바그다드 및 북부지역)에서는 한국군 파병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큰 규모로 파병한 여타 국가(영국, 폴란드, 루마니아, 이탈리아 등)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

2. 동맹군에 대한 시각

- 치안 불안, 전력공급 부족, 민생 악화로 인해 동맹군에 대한 적대감이 존재하나 치안 불안과 재건수요 등으로 외국군 주둔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입장임
- 그러나 이라크 치안문제는 이라크인에게 맡겨야 한

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

3. 한국군 추가 파병에 대한 시각

- ① IGC는 어느 나라에도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,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
- ② 그러나 이라크가 안정화될때까지는 동맹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
- ③ 한국군이 진심으로 이라크인을 돕기 위해 파병한다는 점을 이라크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임
- ④ 터키 등 주변국의 개입에는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과는 달리 한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점을 신뢰하면서 주변국의 개입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군의 파병을 인식

II.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기대

□ 기본 인식

- 재건지원과 치안유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파병시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구분은 의미가 없음
- 따라서 이라크 현지의 사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다기능·다목적 부대를 파병하고, 정부-민간단체의 인도적 구호활동, 문화·스포츠·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 성공적인 민사작전환경을 조성해야 함

1. 동맹군 사령부 측의 기대사항

- ① 미군과의 공동작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군의 성공적 작전 기대
- ② 한국군을 남부 나시리야 지역에 배치하고 영국군을 북부로 이동시키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으나, 영국군의 반발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임
- ③ 미군은 101공정사단 지역에 1개 여단만 남길 예정이며, 지역전담부대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(CJTF-7 부사령관)
- ④ 치안이 없으면 재건도 없으므로 한국군이 온다면 치안과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임
- ⑤ 한국군이 모술에 파병된다면 단계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교체되기를 희망함(101공정사단 작전부사단장)

2. 이라크 현지인들의 기대 사항

가. 치안유지 중심부대에 대한 평가

- 치안임무만을 전담하는 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
 - 치안유지군을 파병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라크인들과 접촉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라크 군대/경찰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실제 치안유지는 이라크인들에게

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

- 재건지원부대는 환영하나, 치안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병은 반대(나시리야 기술대학장)
- 이라크의 군/경찰로 치안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라크 군/경찰을 감독 및 지원하는 것이 동맹군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(모술시 종교 지도자)
- 이라크인들의 한국에 대한 기본인식이 좋다는 점에서 볼 때 치안유지군 파병도 수용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함
-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남부는 수용할 용의가 있으며, 한국이 치안유지군을 보낸다 하더라도 잘 할 것으로 기대함(나시리야 족장협의회 의원 및 엘거지족 족장)
- 주변국가들과 달리 영토적인 욕심이 없는 한국의 파병에 반대하지 않음. 치안과 질서유지는 경제발전의 기초이므로 중요하고, 한국이 추가파병한다면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군대여야 하며, 연합군 및 이라크 군/경과 잘 협력하기를 희망함(키르쿠크 주지사)

나. 공병·의무 등 기능중심 부대에 대한 평가

- 서희·제마부대의 성공적인 재건/의료 지원 활동으로 기능중심 부대에 대한 기대가 높음
- 재건지원과 이라크인들의 주권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라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 파병이라고 생각함
 - 재건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문제없으며, 장비 지원 및 시설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임 (디카르주 경찰청장)
 - 이라크 주변국가의 파병은 치안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지만, 한국은 주변국가가 아니며 인도적 공병 및 의료지원에 감사(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)

III. 한국군 추가파병시 고려사항

1. 파병관련 요소의 결정 우선순위

- 규모/지역/성격 중 지역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임
 - 파병지역이 결정되어야 치안/재건소요를 판단할 수 있고 부대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할 수 있음
 -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치안 유지와 현지인의 민심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

2. 정치적 기반 조성 필요

- 한국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로 이라크인들을 돕고 주권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다는 점을 이라크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
- 이를 위해 정부, 정치인, 경제인 등의 상호방문을 활성화하고 문화·스포츠 교류 및 청소년 지원 등 다방면의 교류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이라크 현지인들은 유엔으로 이라크 문제 이관시 파병의 정당성과 명분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의견을 일부 개진

3. 자금 지원

- 재건지원 부대 파병의 경우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수반되어야 함.
- 서희/제마부대의 경우 재건소요가 많으나 5,000\$이하의 공사만 수주하는 관계로 임무수행에 제약이 많음
- 우리부대가 주둔지역에서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(CERP 등)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CPA와의 협의 필요

4. 지휘체계 및 군수지원, 예산확보 문제

가. 독자적 책임구역 확보에 대한 견해

- 미군과의 조율 및 작전권 관계, 현지주민과의 관계 설정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 책임구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, 이 경우 치안유지와 의료 및 공병작전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혼성군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
 - 그러나 치안유지 기능은 이라크 민병대/경찰인력 양성 등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.
- 그러나 독자적 책임구역을 갖는다 하더라도 미군과의 협조관계가 중요

나. 군수지원

- 군수조달의 재원 및 보급로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
- 미군의 경우 막대한 군수지원 소요
 - ※ 101공정사단의 경우 1일 물동량이 DHL항공기 하루 3대, 수송기 하루 7번 이착륙, 인도적 지원 150대 트럭, 병참지원 150대 트럭 등
- 장비/시설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, 기동장비(헬기 등) 보유가 작전 수행에 필수적

다. 예산확보 문제

- 현재 '04년 국방예산에 추가파병 소요예산은 미반영
- 기 파병되어 있는 서희·제마부대를 기준으로 3,000명 추가파병하면 기본비용은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 추정 (급여 926억원, 식비 78억원 등)
- 이 외에 부대주둔을 위한 비용, 전후복구사업 예산 필요.

5. 민사작전 관련문제

-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여야 함. 특히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라크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물임. 이라크인들은 세계최초의 도시문명이 발흥하고 고대 메소포타미아문명의 발상지로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강함
- 다민족, 다종교 국가인 이라크에서는 부족 및 종교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족 및 종교지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
- 한국에서 파견된 민간 NGO와의 연계활동 강화가 민사작전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
- 아랍어에 능통한 통역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긴급
 - 국내에 거주중인 귀화 아랍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

6. 이라크 군/경찰과의 정보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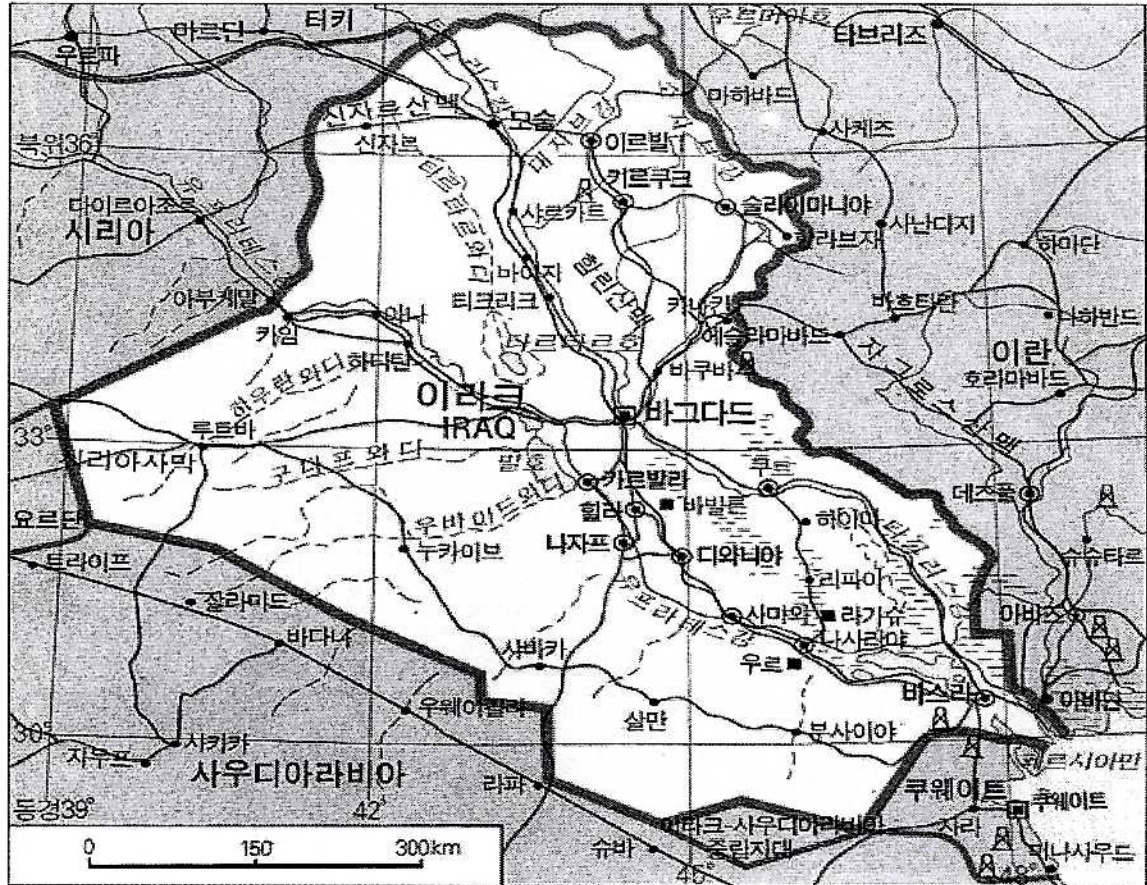
- 이라크 현지인들은 이라크 군/경이 테러세력에 대한 정보를 동맹군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치안유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
- 한국군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주둔지의 치안 안정을 위해서는 이라크 군/경찰과의 정보공유가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
- 정보, 작전, 군수, 민사 네 임무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는 정보관련 임무임(101공정사단 작전담당 부사단장)

7. 사고발생시 대처 방안

- 1차적으로 대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
- 사고 발생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트릭스 필요
- 이라크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,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

제4부. 이라크 현황

I. 이라크 개황



- 면 적 : 43만4,924km²(한반도의 약 2배)
- 인 구 : 약2,300만명(중동 5위)
- 개인GDP : 2,500불로 중동지역 14위
- 주요민족 : 아랍인(Arabs, 79%), 쿠르드족(Kurdish, 16%)
터키인(5~10%), 기타 앗시리아인
- 주요언어 : 아랍어(Arabs, 공용어), 쿠르드쉬어(Kurdish, 북부)
- 종 교 : 회교(이슬람 95: 수니파 40%, 시아파 55%), 기독교(4%)

II. 현지 일반 정세

-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삼각지대(Suni-Triangle)에서의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타 남부와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은 상대적으로 호전
- 치안상황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의 테러가 증가하는 등 치안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일부 분석도 있으나(영국 사실보안업체 Global Risk Strategies 브리핑)
- 현지 조사결과 이라크 군/경, 민병대 등 자체 치안 세력의 재건 등을 통해 전반적인 민생치안 상황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
 - 이라크경찰(IPS) : 현재 65,753명 배치 완료
 - 이라크민방위군(ICDC) : 4,115명 훈련 중, 4,676명 작전 중
- 다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된 남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도 나시리야 주둔 이태리사단에 대한 자살폭탄테러와 모술주둔 미군 살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님

- 연합임시행정처/동맹군 사령부 등 현지 통치 기구는 이라크 군/경 양성 작업을 서두르는 등 다국적군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던 치안 및 행정업무를 이라크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 중
- 비록 속도가 느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후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. 전후복구사업의 장애는 ① 치안불안 ② 예산 및 자금 부족임
- 이라크인들은 한국인에 대하여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
 - 1차 걸프전 당시 우리 건설회사(현대, 대우 등)들이 전쟁기간에도 철수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점에 대한 신뢰감
 - 한국제품에 대한 높은 평가
 - 스스로 동양 사람이라 생각하는 이라크인들의 의식
 - 한국이 이라크에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믿음
 - 월드컵 등 각종 스포츠를 통한 친밀감 형성
- 이라크는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원, 농지, 수자원 등 중동지역에서는 기본 여건이 좋은 국가로 전후복구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충분